

부활의 증인 (요 20:1~18)

-막달라 마리아-

이 용 호

(서울 영천교회 담임 목사)

첫번 부활절 아침에 여인 몇 사람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 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본문에는 다른 여자의 이름은 없으며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마리아 와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가 죽은 지 사흘되는 날 이른 아침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향료를 바르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장사될 때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이 자유롭게 향료를 발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시체가 너무 부패하지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능히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1. 빈 무덤의 수의

막달라 마리아가 가까이 이르자 놀란 마음으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돌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장사된 뒤에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던 조치가 몇 가지 취해졌습니다. 먼저 돌로 무덤의 굴목을 막았습니다. 또한 총독의 인봉을 붙여 아무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돌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놀랐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와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들 도 놀랐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마 힘껏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요한이 뛰기를 잘했는지,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서인지는 잘 모르나 아무튼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여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찾던 수의는 그대로 있었 으며, 주님이 누웠던 자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뒤 베드로가

도착했고 그가 먼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무덤은 비었고 세마포는 벗겨진 채 그대로 있었고 머리를 씻던 수건은 옆에 개켜 있었습니다. 요한은 따라 들어와 그러한 광경을 보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믿고 기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참 믿음은 성경에 이른 말씀에 입각하여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믿어야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이른 부활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고 돌문이 열린 빈 무덤만 보고 예수의 시체가 없다는 것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수의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물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2.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단축 마라톤을 한 셈입니다. 그녀는 무덤에 갔다가 달려와서 두 제자에게 전달을 하고 또 가서는 다른 두 제자와 함께 돌아가지 않고 무덤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무덤에 들여다보니 예수가 누웠고 발쪽과 머리쪽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고 하자,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들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고 했습니다. 그 때 뒤로 돌아보니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주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이 가져갔거든 내게 이르소서”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여” 하고 불러 주셨습니다. “랍오니여” 하고 보니 주님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너무도 놀랍고 반가워서 주님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시고는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부활한 것을 보게 하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울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사실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었고 또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람이 있다면 으레히 동산지기만 있을 줄 알았기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본 것은 자신의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마리아여” 하고 다정하게 불러 주시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식과 생각의 한계 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여러 경우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로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3. 부활과 새 역사

예수님의 부활은 새 역사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새 역사의 사역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새로운 모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새 마음, 새 감정, 새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한 사건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역사도 다 새로워졌습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체에 향로를 발라 드리기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너무나 기대 밖의 놀라운 체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과 수의를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다시 새 소식을 전했습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났으며 가서 그 사실을 전하라고까지 하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맺음말

새 사람, 새 지식, 새 말, 새 행동, 새 역사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실로 막달라 마리아는 새 역사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났으며 새 역사의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시체에 기름을 발라 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끈기와 집념이 그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무슨 목적으로 나왔든지 상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를 보러 갔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만 만나고 갑시다. 그저 나왔든지, 목적을 갖고 왔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새 역사의 주인이요 또 역사의 완성자도 되십니다.